글로컬리제이션, 세계화의 지역적 구현인가 세계화의 대안인가* **

- 글로컬리제이션, 민주주의, 대학 -

이승렬***

〈차 례〉

1. 들어가며: 세계화와 '삶의 가치'의 붕괴
2. 제국과 로컬
3. 세계화 시대의 지역대학과 민주주의
4. 나오며: 생명정치와 올바른 의미의 글로컬리제이션

"내 20대, 30대를 거의 한국에서 보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 미누

【국문초록】

글로컬리제이션 또는 세방화라는 말은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용어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용어의 기원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로

* 이 논문은 2008년도 영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유익한 논평에 감사드린다.
*** 영남대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컬의 세계화를 통한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저항이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상대의 행위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의 지향점은 저항 너머를 모색하고 있음을 말해야할 것 같다. 가령,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운동은 단순히 저항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학은 자본과 기업의 세계화 과정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주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컬리제이션의 이중적 의미를 탐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학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려한다. 민중과 지역민의 자기 통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려는 것은 삶의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다.

주제어: 세계화, 세방화(글로컬리제이션), 공교육, 생명정치, 방리유, 다문화주의, 벌거벗은 삶, 민주주의, 신뢰, 지역사회, 트랜스로컬, 사파티스타

1. 들어가며: 세계화와 '삶의 가치'의 붕괴

작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오던 세계화 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었다. 현재 회복 중이라는 세계의 경제가 실제로는 언제 다시 금융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끝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침체의 늪으로 언제 다시 빠져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런 형편 속에서 글

로컬 담론을 새삼 거론하자면, 세계화라는 기존 질서가 굉음을 내면서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국면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세방화(世方化) 담론이 세계화의 한 양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화의 근본 성격에 대해 철저히 생각해 보는 자세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설혹 그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때늦은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원래 인문학이란 오랜 과거 속에서 형성된 진실의 순간을 현실에 비추어 미래의 전망을 이끌어 내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배영순 교수는 작년 이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적 과정을 "삶의 가치, 생활세계의 복원을 향한 몸부림, 그리고 역사적 조정 과정"[1]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 꽈리를 틀고 있는 물신적 공포 심리는, 말하자면, 굶주리지 않으려면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체화하고 그를 통해 돈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통계에도 나왔지만 한국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순응주의적(conformist)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굶주리지 않으려면 산업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고전주의 경제학파의 선구적 학자들인 맬더스나 리카르도 같은 이들의 현실적인 '철의 법칙'인 것을 보면, 공포 심리의 만연이 비단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한 사정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운영의 동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결국 살기 위해서 또는 생활하기 위해서 이윤추구과 탐욕의 가치관 위에 성립된 체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시민들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가치"와 "생활세계의 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역사의 자기조정 국면에 있다고 하는 배 교수의 진단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

1) 배영순, 「2008년 공황의 인문학적 해석: 세계시장의 해체와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민족문화논총』 제42집 348쪽. 2009년.

2. 제국과 로컬

우리의 삶의 기저에 놓여있는 공포심리에 대해 말했지만, 우리가 현재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수단으로서의 돈의 결핍이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해지는 경제적 착취 같은 사항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식량 부족, 에너지 고갈, 그리고 전염병 창궐의 가능성 같은 문제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과 생활의 근본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문제이기도 하다.

가령,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큰 위협으로 다가온 신종플루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종플루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5월 초순, 영국의 『가디언』지는 당시 통용되던 병명이었던 돼지 플루의 전지구적 확산의 진원지가 멕시코의 한 시골마을인 라 글로리아 지방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마을에 있는 커다란 호수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미스필드라는 다국적 식품가공회사의 돼지 사육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된 지 오래이며 온 마을은 몇 년 전부터 10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는 축사로부터 나오는 배설물과 오폐수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했다. 그 결과, 지난 2월부터 3000명의 마을인구 중 수백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가 처음으로 병원에 등록된 한 소년의 혈액검사 결과 현재 전지구적으로 대유행이 시작된 신종플루와 동일한 바이러스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스미스필드라는 식품가공회사는 몇 년 전 미국 환경청의 규제에 걸려 더 이상 버지니아 주에서 식품가공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멕시코의 라 글로리아 마을로 이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환경훼손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던 다국적 기업이 멕시코의 한 시골마을에서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과 환경을 대가로 마음껏 이윤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1994년 미국과 멕시코에서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내용 때문이다. 단순히 양국간의 관세만 철폐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의 이윤추구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의 관리, 감독, 규제기능을 무력화시킨 뒤 해당국가의 지역들을 자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라 글로리아라는 지역의 비극은 곧 세계화의 비극이며 신종플루의 전지구적 확산에서 보듯이, 그것은 다시 전 세계인들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글로컬은 글로벌한 것과 별도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은 이미 글로컬한 것이기도 하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의 타겟이 로컬이며 여기서 국가는 수출증대와 외자유치라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본의 횡포로부터 로컬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의 대행인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방기하는 데에 앞장선다. 우리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은 전국 각 지역에서의 농업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으며 중국 상하이차의 자본이 들어왔다 빠져나감에 따라 쌍용차의 노동자들과 평택의 지역경제는 그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 체제의 부작용이 국가단위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국가 내부의 여러 지역과 계층에서 일어나는 만큼, 세계화 체제에 대한 저항과 대안모색도 국지적 차원에서 일어난다. 세계화에 따른 시장의 확장은 이른바 '선진국'/'후진국'의 경계를 뛰어넘어 발생하므로, 그 역작용은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또한 그 양상은 반드시 기존의 계급별 차등 형식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88만원 세대'라는 사회적 존재가 있지만, 유럽에도 '1000유로 세대'가 있다. 하이테크 산업혁명과 세계화의 진행은 더 이상 고용과 노동이 없는 사회를 불러올 것이라는 제러미

리프킨의 지적대로,[2] 청년 세대의 저임금 노동 문제 또는 청년실업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된 모든 국가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에는 본질적으로는 세대와 세대 간의 것으로만 환언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명사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세대만의 국지적(로컬)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문제이건, 부분의 문제이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은 결국 해당 사항이 있는 계층이나 세대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서 모두에게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2005년 프랑스에서 입법 예고된 "최초고용계약법"에 대한 대학생들의 저항이 좋은 예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 첫 직장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언제든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후폭풍은 심상치 않았다. 수십만이 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으며 두 달 간 시위가 지속되었고 종국에는 300만이 넘는 대학생, 노동자 연합 시위로 발전하면서 결국 이 법안은 철회되었다.

이 사건이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세대별 분할선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면, 같은 해 역시 프랑스 파리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방리유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동은 인종적 분할선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명의 무고한 아랍계 소년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벌어지자 6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계 청년들의 시위가 벌어져 결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티트부아르 같은 주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 출신들로

2)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서울: 민음사, 1996년.

서 제국주의 시대 종식 이후 신식민지적 상황이 어떻게 네그리적인 의미의 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네그리에 따르면,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차별은 백인 이외의 인종을 본질적으로 열등한 인종으로 보는 데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된 것 같은 시대의 인종론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개별 인종이 하나로 통일된 세계화 체제의 틀 속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떠맡고 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종 간의 위계질서는 사회적 상황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보는 것이다."[3]

제국주의 시대에 백인 이외의 인종들에 대한 차별이 전적으로 본질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제국주의 시대에 유색인종들이 식민지적 상황에서 착취 받고 희생된 것은 단순히 이들이 원래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이나 모르는 존재에 대한 백인들의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폭력 행위 때문만은 아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차별은 오히려 식민 착취에서 오는 이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탐욕과 식민지 건설을 통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 국가 체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편의적인 방편 등 다양한 역사적 원인과 맞물려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에 대해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것은 유럽인들의 제국주의에서 비롯한 노예무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하워드 진은 그러한 차별이 가능했던 역사적 상황을 여러 가지로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흑인노예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를 결정지워주는 아프리카의 공동체적 사회질서로부터 뿌리 뽑힌 상태에서 동료들(백인 계약 노동자들 포함)과의 사회적 유대를 어렵게 만드는 백인들의 통치공학적 술

3) Michael Hardt & Antonio Negri, *Empire* (Massachusetts: Harvard UP, 2000), 193쪽.

책을 지적하는 대목은 특히 눈에 두드러진다.[4)]

제국주의 시대와 제국 시대에 나타나는 인종차별 양상의 차이점에 대한 네그리의 해석은, 사실은, 각 시대의 지배세력들이 인종적 문제에 대해 내놓는 지배담론과 일치한다. 아프리카계 흑인 인종에 대해 원시적 타자성을 부여하여 인간 이하의 존재들인 흑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제국주의적 태도와 탈식민 시대에 인종적 차별은 각 인종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다문화주의적 태도는 각 시대별 지배적 담론일 뿐이다. 흔히 '샐러드 그릇'이라는 상징어로 표현되는 다문화주의는 차이의 문화정치학을 표방하지만,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포스트포디즘 생산형태를 통한 자본 축적 모델에 가장 잘 들어맞는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문화주의적 문화에 대해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데릭 젠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문화주의적 문화론은 "문화가 그것을 낳은 땅을 떠나 분리될 수 있고 그것이 등장한 특정한 장소와 깊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5)] 세계문화의 헐리우드화나 민족문화의 세계화 같은 말 속에는 문화가 특정한 장소, 기후, 생태계, 그리고 거기에 깃든 공동체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 구체적인 장소, 자연,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문화적 노마디즘은 자본의 흐름과 축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노동의 이동과 이주에 따라 특정 민족국가의 내부에 격리된 채 관리되는 문화는 마찬가지로 자연에 호응해서 형성되는 삶의 문화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하워드 진이 인종차별의 조건으로서 공동체적 사회질서의 붕괴를 꼽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차별과 착취는 반드시 경제적인 것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체제의 논리에 따라 전세계적인 이동과 이주를 반복하고 있는 노동인구가

4) 하워드 진,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 『미국민중사』(2008년).
5) 데릭 젠슨, 『거짓된 진실』, 아고라, 2004, 272쪽.

거주하는 공간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대등한 입장에서 타인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다. 사회적인 것의 우선적인 회복을 통해서 자유주의 경제학을 극복하고자 했던 경제사상가, 칼 폴라니는 계급의 이익을 단순히 경제적인 데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서열, 신분, 안정성 같은 사회적 가치와 연관시켜 설명한 바 있다.[6]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차지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다른 이들과 대등하게 교류할 수 없는, 일종의 격리 상태에 있는 그룹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적, 기능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것이다.

로컬리티, 즉 지역적 가치의 구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경제적 가치에 앞서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 가치의 복원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인종 간의 위계질서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네그리 의 지적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종 간의 우열은 자유경쟁, 즉 개별 문화의 시장성(market meritocracy)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네그리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문화나 사회적 가치가 구성원들의 사회적 삶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처럼 네그리와 폴라니의 차이 또는 네그리와 하워드 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전지구적으로 시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했음을 뜻하는 세계화 시대에 로컬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로컬은 시장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원인가? 아니면 로컬은 그 자체로 삶의 터전인가?

사파티스타의 예를 생각해보자. 잘 알려진 대로, 멕시코의 치아

6)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길, 416쪽.

파스 지역의 토착농민들이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부사령관 마르코스를 중심으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을 조직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옥수수 농사의 괴멸을 막기 위한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199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세계화 체제의 대행자에 지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이래 지금까지도 라칸돈 정글 내의 지역 공동체를 근거지로 하여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로컬은 단순히 세계화 체제의 먹이감으로 제공되는 공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체제에 저항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싸움터이기도 한 것이다.

글로컬리즘은 글로벌 로컬리즘이 축약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세계화 경제 전략가인 오마에 케니치는 여기서 글로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고 로컬리즘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밖에 되지 않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7] 세계화를 반대하여 로컬리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상가, 이론가들이 1994년 결성한 <세계화에 관한 국제 포럼>이 1999년부터 3년간의 연구에 걸쳐 내놓은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이라는 연구서 역시 지역공동체와 그 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대기업,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WTO, IMF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가져간 것이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8] 이처럼 세계화를 둘러싼 찬반의 입장을 관통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주권이 글로벌 권력에 의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점이다.

---

7) Kenichi Ohmae, “Beyond Friction to Fact: The Borderless Economy,” Arif Dirlik, “Global in the Local,” *Gobal/Local* (Durham: Duke UP, 1996) 31쪽에서 재인용.

8)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 (San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2002)

3. 세계화 시대의 지역대학과 민주주의

현재 영남대학교의 로고는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이다. "세계"와 "거점"이 합쳐지면 우리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거인들로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할 만한 슬로건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상품이 되거나 적어도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대학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른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산·학·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세계 표준에 맞는 지역화"를 이루는 일이다.[9] 사실상, 이러한 우리 대학의 구호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구호이기도 하다. 이미 어느 대학이나 영어를 "원어"로 가르치고, IT·BT 분야를 특성화하고, 기업과 지자체 발주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하고, 중국·아세안 등지의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SCI 급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논문을 양산하도록 격려금을 지원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봉급을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표준화"를 이룬 상태이다.

문제는 이렇게 획일화된 대학의 정책들이 실제로 각 지역의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은 자연 속의 종 다양성이 보장받는 곳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자연은 문화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데릭 젠슨은 다양성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린다. "다양성은 풍부한 야생의 문화들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문화, 각각 특정한 장소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문화들이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특정한 장소에서 나온 언어와 관계의 복합체, 지역을 넘어서서 표준화될 수 없는 언

9)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YU 글로컬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부분을 인용하였음.

어와 관계들이다. 다양성은 공동체들이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땅에 의존할 뿐, 그 외 어떤 것에도 자신을 의탁하려 하지 않는 공동체 내의 개인들이다. 멀리 있는 존재나 제도에 도움을 받지 않고 그것에 조종당하지 않는 개인들이다."[10] 각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아웃 바운드 정책은 지역의 공동체들에 대해 대학이 인재를 공급할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 지역문화를 세계표준에 맞추겠다는 말은 지역문화의 야생성을 지우고 세계시장에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 놓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주의(global localism)는 정확하게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이라는 우리 대학의 정책목표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우리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들과 우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대학의 생존 자체도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제하는 어떤 힘, 즉 세계화된 자본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결국 지역대학이 세계화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가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demo-cratia)는 본래 "인민의 자기통치"를 뜻한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역사적 여정에 참여하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대학 역시 그런 관점에서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대학처럼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대학은 지역과 지역민의 발전과 자유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바, 모든 이들의 평등과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에 기초한

10) 데릭 젠슨, 앞의 책, 333쪽.

미국 민주주의와 그의 교육 이념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며 또한 제퍼슨 이후 대학 정신의 변화와 미국 민주주의의 변질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철저히 적정규모의 소농을 중심으로 한 분권주의 정치 철학을 지녔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은 대학 교육의 필요를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덕성을 키우는 데에서 찾았다.[11] 아울러 제퍼슨은 오로지 경쟁을 통해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학업의 수월성(秀越性)을 강조하는 한국의 자유주의자들 못지않게 교육의 기능을 수월성 제고에서 찾는다. 그러나 제퍼슨이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이다. 제퍼슨에게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성을 절차탁마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에 대해 의심을 갖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감독(the vigilant and distrustful superintendence)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를 수 없다."[12] 제퍼슨은 이웃 주민과 땅에 의지하는 평민들의 상식에 의지하여 그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 비판하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꾸고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는 지역의 생존 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지역기반적 리더십 위에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퍼슨은 대도시의 산업체제에 의해 소농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순환경제체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대학이 떠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제퍼슨의 교육 이념과 다르게, 대학

---

11) 토마스 제퍼슨의 교육 이념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Wendell Berry, "Jefferson, Morrill, and the Upper Crust,"를 참조하시오. 이 에세이는 *The Unsettling of America: Culture and Agriculture* (San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77) 143-170쪽에 있음.

12) 토마스 제퍼슨, 앞의 책, 144쪽.

의 교육 목표가 학생들을 좀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학생들의 입신양명에 있을 때, 지역의 생존 토대는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미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의 공유지와 공동자산이라는 기초 위에서 시작된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의 붕괴였다.[13]

대학이 우리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강제적 명령에 가깝다. 예컨대, 강의실에서 모국어를 포기한 채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강의한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사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그것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완전한 언어적 번역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 강좌 비율을 강제로 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불합리한 강제의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영어 강좌를 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사회적 혜택을 주어가면서 학교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 자체가 강의를 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은 공적인 신뢰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뢰가 무너질 경우 대학의 질서는 그저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유지되는 죽은 질서일 가능성이 크다. 신뢰는 공적인 약속에 기초하는데, 그런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신뢰성은 매우 약한 토대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수들의 논문의 양을 늘려놓거나 국제학부를 신설하여 영어 강의를 일상화한다고 해서 대학의 학문적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둘째, 국제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 수준이 괄목할 만큼 향상될

13) 버몬트 주의원 저스틴 모릴이 발의한 모릴법에 따라 연방정부 소유의 땅 12,000ha를 불하받아 세워진 대학들에서 노동자, 농민의 자녀들, 여자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훗날 이 대학들의 상당수 오늘날 주요 주립대, 사립대로 발전하였다.

것이라는, 역시 암묵적이고 막연하지만 그럴 듯해 보이는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것이다. 더구나 약속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 계약의 성격을 가지려면 다른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약속을 하였다는 자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대학 체제를 보면, 지식의 상품화가 곧 학문의 본령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또는 글로컬을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는 것은 거의 어쩔 수 없는 강제적 약속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사상가 더글러스 러미스는 근원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공적인 신뢰를 꼽는다. "민주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필연(적 신념이나 법칙)이 아니라 신뢰에 의해 질서를 이룬다. 신뢰에 기초해서 사회적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약속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에 달려있다."[14] 전통시대의 공동체적 질서가 살아있던 시절에 신뢰가 가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공동의 믿음 체계가 무너진 오늘날 어떤 공적인 약속도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자연스러움에 대한 공동의 보편적 감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각자의 계급적·문화적·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처지에 대한 공감의 능력으로 인해 현재 붕괴되어있는 공동의 믿음 체계까지 복원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보편적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세계체제론자인 아리프 딜릭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장소로서 로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간디를 다음과 같이

---

14) Douglas Lummis, *Radical Democracy* (Ithaca: Cornell UP, 1996) 143쪽.

비교한다. 간디는 “문화가 집단적 실험을 통해서 변한다고 믿었는데, 여기서 실험의 출발점은 항상 현재였지만 진리 추구 과정에서 다양한 과거의 시간에 열려 있었다. 나는 이제 로컬이 이와 같은 실험 장소라는 점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나 이 실험의 범위는 글로벌해야 한다. 저항을 낳은 세계화라는 맥락을 무시하면서 어떤 ‘진정한’ 지역문화에 대해 재긍정을 모색하는 저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른바 진정한 지역문화라는 것은 매일같이 세계화 세력에 의해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15] 간디가 현실의 변혁을 위해 과거의 시간을 중요한 자산이라고 여겼다면 딜릭은 과거의 것은 이미 해체되고 없으니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로컬의 세계화(트랜스로컬, 다시 말해 저항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가들의 주장이 대개 그러하듯, 딜릭의 글 속에는 지역 간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연대의 조건이나 원리는 무엇인지가 나타나있지 않다. 간디가 현재의 실험에서 과거에 눈을 떼지 않은 것은 그 곳(과거)에 사람 사는 모습의 변치 않는 자연스러움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디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복고적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태도는 다시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에 개입하는 중요한 도구를 제공해준다. 가령, 농업은 딜릭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과거의 것에 지나지 않지만, 간디의 눈으로 보면 농업은 인류의 다양한 실험들을 관통하는 어떤 진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것은 환경과 식량 위기의 시대에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활동이자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의존을 자연스럽게 다시 떠올리게 하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이다. 동시에,

15) Arif Dirlik, 앞의 책, 40쪽.

자연스러움에 기초한 우리의 상식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계화의 흔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해준다. 18년간의 한국 생활을 강제로 청산당하고 자신의 모국인 네팔로 추방당한 미누가 우리에게 '트랜스로컬'한 존재일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의 그의 삶은 대한민국의 외국인관리법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는 공장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래와 카메라로 한반도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표현했고 한미 FTA 반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에도 참석하는 등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삶은 이곳을 진정한 그의 고향으로 만들어주었다.

사실 미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스톱크랙다운(단속금지)' 같은 밴드를 결성하거나 시국관련 시위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었다. 그가 국가의 미움을 사서 결국 추방당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슬픔이지만 한반도의 주민들에게는 다시 한 번 국가 체제의 야만스러움을 일깨워주는 정치적 각성 효과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만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의 몸은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자유인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추방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이곳의 민주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같은 시민으로서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신뢰는 자유로운 인간의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발명되었다. … 신뢰는 증거가 아니라 판단이자 선택이다."[16] 대학이 민주적인 공적 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대학이라는 기관이 민주 조직으로서 신뢰를 얻어 트랜스로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유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수는 그저 논문의 숫자를 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학생은

16) Douglas Lummis, 앞의 책 153쪽.

스펙을 쌓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직원은 교수와 학생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관료조직의 세포로만 기능할 때, 대학은 세계화 또는 세방화의 노예다. 그러나 대학인들이 자유로운 주체가 되어 지역 농산물 구입을 직접 조직하고 대학 안의 또 다른 타자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교권을 위해 함께 싸울 때 대학은 민주다.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만 타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울림이 되도록 하자. … 절대권력이 걸어오는 전쟁에 저항하는 음성들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자."[17] 이것은 1996년 멕시코의 치아파스에 사파티스타의 초청으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3,000명 넘는 반세계화 활동가들의 모임이 끝난 후 마르코스가 발표한 선언문에 나오는 말이다.

4. 나오며: 생명정치와 올바른 의미의 글로컬리제이션

글로컬리제이션이나 그 이념적 토대인 다문화주의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문화에 대한 상호 인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주의적 담론의 소비 행태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것이 이국적 취향의 자극이나 자선(慈善) 감정의 분기 또는 민주사회에 대한 허구적 표상 만들기 등에 동원될 때 글로컬리제이션이나 다문화주의가 표방하는 다양성은 세계화 담론을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확장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프랑스 파리, 방리유에서의 소요 사태를 다시 생각해보자.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 출신자들로 이루어진 이곳 지역 주민들을 프랑스 정부 당국은 잠재적인 범죄인들로 취급하여 이곳에 대해 치안 업무를 집중하면서 이곳 주민들은 프랑스라고 하는

17) 폴 킹스노스, 「사파티스타 농민운동--자치를 위한 투쟁」, 『녹색평론』2003년 7-8월 호, 140쪽에서 인용.

다문화주의적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2005년 방리유에서의 소요사태가 크게 번지자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이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율이 70%를 상회했다.

이것은 전지구적으로 자본의 위력이 퍼져나가 종래의 국경을 가로질러 새로운 주권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에 동원되는 다문화주의 이념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데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를 보여준 예이다. 탈근대주의적 주권이론을 정초하여 탈근대적 지배 이념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준 안토니오 네그리나 조르조 아감벤 같은 정치학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푸코의 생명정치적 통치원리를 그 핵심으로 제시한다. 탈근대 사회에서는 순수한 인지, 소통, 언어, 그리고 유전적 능력이나 특성 같은 생명 현상이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해서 한 사회의 통치 과정을 결정하는 공론(정치)의 장에 적극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정치영역에서의 정치과정(거버넌스)의 지배적인 요소가 생명현상적인 것이 됨에 따라 극단적인 여론조작이 가능해지고(인지과정 자체가 조작된다고 생각해보라!), 그에 따라 정치과정의 공론적 성격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특히 아감벤은 이러한 생명정치적 특성으로 인해서 특정 그룹이 전체 사회로부터 격리·배제되는 원리를 "주권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잘 설명했다.[18]

방리유에서의 저항이 거세지자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사르코지는 소요지역을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진공청소기로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말은 단순히 막말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탈근대사회의 공론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지배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언사였다. 프랑스의 지배세력에게 방리유의 이주민들은 프랑스 사회 전체의 치안과 안녕을 오염시킬

18) Georgio Agamben, *Homo Sacer* trans. Daniel Heller-Roazen(Stanford: Stanford UP, 1998) pp. 15-29.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55-81쪽.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었다. 세계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탈근대적 방식은 이처럼 사회의 일정한 계층이나 그룹에게서 정치적·사회적 삶을 박탈하여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명정치적 구도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든 같은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국경을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 점점 실업이나 불안정 고용자 층으로 내몰리는 청년 그룹, 실업의 압력이 가중되어가는 직장인들, 재개발 정책으로 삶터에서 쫓겨나는 주민들, 그리고 국경 너머로부터 몰려들어오는 값싼 농산물로 인해 점차 고사 위기로 몰리는 농업인들에 이르기까지 "맨몸으로"(아감벤) 사회적 또는 정치적 존재임을 부인당하는 계층들이 편재하게 되는 것이다.

때마침 개봉하여 꽤 많은 관객을 모은『디스트릭트 9』은 이같은 생명정치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다. 이 영화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의 상황을 외계인의 출현에 빗대어 알레고리 형식으로 그린 영화다. 1970년 남아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의 '디스트릭트 6' 구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6만 명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을 모델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주인공은 비커스라는 인물이다. 흉측한 벌레 모양을 하고 있는 외계인들을 디스트릭트 9 구역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백인 총책임자인 비커스는 결국 외계인과의 접촉으로 그 자신이 외계인화 되어가는 비운의 인물이다. 영화 속에서 외계인 강제 수용 구역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에게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있지만 인간들에게 이들은 그저 박멸해야 될 해로운 해충이나 제거해야 될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었던 비커스가 외계인 마을 철거반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아 환호작약하지만 외계인에게 오염되어 신체의 일부가 외계인을 닮아가자 이내

그 역시 생체무기의 연구대상으로 전락하여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철거민이나 노숙자와는 관계없는 존재로 상상하여 그들을 벌레처럼 바라보는 대중들의 환각 속에 기꺼이 몸을 맡기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그들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이처럼 체제 내의 예외적 타자(他者)로 낙인찍힌 존재들을 공동의 적으로 삼음으로써 전체 사회가 작동하지만, 바로 이러한 예외성의 편재야말로 생물정치가 지배하는 사회의 비극이자 비밀이라는 사실을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다.

에티엔느 발리바르는 2005년 방리유 사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게토화된 방리유의 "인구 구성과 그 움직임들은 세계화의 '전지구적' 모순과 그것들의 지역적 투사(projection)를 반영하고 있다."[19] 세계화의 지역적 투사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생명정치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생명정치적 방식으로 세계화의 모순을 지역에 투사한다는 것은 또한 생명의 토대를 이루는 생태적 기반을 세계화가 잠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명은 정보공학과 생명공학의 조작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에 대한 공학적 조작의 결과로 생기는 온갖 생명위기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자신의 위치에서 타자의 목소리를 내자"는 사파티스타의 지도자, 마르코스의 언명은 타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타자와 유대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자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자에 대한 우정과 환대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 행위

19) 에티엔느 발리바르, 「방리유에서의 봉기들」,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이기라, 양창렬 편저, 그린비, 2007) 401쪽. 특히, 2005년 방리유 사태와 관련하여 프랑스 공화주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치안국가 논리를 파헤친 글로서는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이기라의 「"공화국을 보호해야 한다": '방리유'를 둘러싼 치안논리와 낙인찍기의 통치메커니즘」을 보시오.

의 원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이나 위치에서 타자의 목소리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낼 때 그 공명은 전지구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올바른 의미의 글로컬리제이션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발리바르, 에티엔느.「방리유에서의 봉기들」,『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이기라, 양창렬 편저, 그린비, 2007)

배영순,「2008년 공황의 인문학적 해석: 세계시장의 해체와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민족문화논총』제42집. 2009년.

젠슨, 데릭.『거짓된 진실』, 아고라, 2004.

리프킨, 제레미.『노동의 종말』이영호 옮김, 서울: 민음사, 1996년.

폴라니, 칼.『거대한 전환』, 길

킹스노스, 폴.「사파티스타 농민운동--자치를 위한 투쟁」,『녹색평론』2003년 7-8월호.

진, 하워드.「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미국민중사』(2008년).

Agamben, Georgio. *Homo Sacer*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P, 1998)『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Arif Dirlik. “Global in the Local,” *Gobal/Local* (Durham: Duke UP, 1996)

Berry, Wendell. “Jefferson, Morrill, and the Upper Crust,” *The Unsettling of America: Culture and Agriculture* (San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77)

Hardt, Michael & Antonio Negri, *Empire* (Massachusetts: Harvard UP, 2000)

Lummis, Douglas. *Radical Democracy* (Ithaca: Cornell UP, 1996)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lternatives to Economic Globalization* (San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2002)

Glocalization, the Projection of Globalization into the Local or the Alternative to Globalization: Glocalization, University, Democracy

Lee, Seung-Ryul

This paper undertake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glocalization from the very opposite perspectives: the projection of the logic of corporate globalization into the local on the one hand and the putting forth of the alternative to the corporate globa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the local college, or public education in general i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it is possibly the agent of glocalization which brings the global power into the local in the name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omas Jefferson's ideal for the public education is introduced that its raison de'tre is to enrich the people's life of the community as a farmer, a small business man, and a member of their association. The discussion of the public education leads to the question of democracy. How the meaning of the democracy as a people's self-rule is realized in the public realm of the community and how the public education contributes to it is asked, if not answered, in this paper.

Key words : globalization, glocalization, public education, bio-politics, banlieue, multi-culturalism, bare life, democracy, trust, community, the translocal, Zapatista

이승렬
소속: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번지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053-810-2137
전자우편: srlee5929@y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